

논콩 생산단지 무굴착 땅속배수 현장 평가

농진청, 김제 종신지구 논콩 생산단지 대상... 기술 활용 의견 나뉨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지난달 29일 김제시 종신지구 논콩 생산단지에서 올해 무굴착 땅속배수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평가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는 농업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해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의 배수 효과와 논 콩 생육 상황 등을 살펴보고 기술 활용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제시 종신지구는 2023년 농림축산식품부 논콩배수개선사업이 시행된 곳이다. 배수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 올해 초 농어촌공사에서 14.2헥타르 면적에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을 투입했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땅을 파지 않고 배수관과 소수재를 땅속에 동시에 묻어 물 빠짐을 돕는 기술이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에서 지난 5년간 시행한 현장 실증시험 결과 이 기술을 적용하면 습해가 적어 인근의 일반 논보다 콩 수량이 20~50%가량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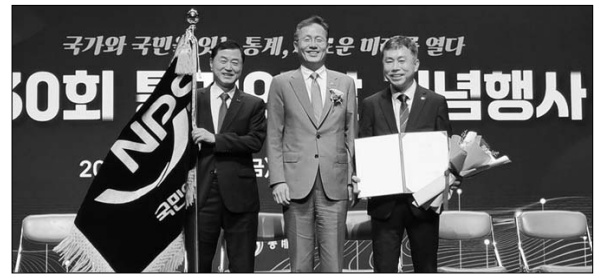
종신지구의 무굴착 땅속배수에 따른 배수 개선 효과는 올해 장마를 지나면서 확연하게 나타났다. 장마 동안 땅속배수 기술이 투입된 논은 토양수분은 26.1%로 일반 논보다 15%가 낮았고 지하수위도 49%가 더 낮게 유지됐다. 현재 개화기를 지나고 있는 콩 생육도 땅속배수 처리 논에서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생육 차이는 추후 콩 수량 차이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 시공비용은 트랙터부착형의 경우 헥타르당 1,232만원으로 기존 굴착식보다 67% 낮은 수준이다. 게다가 한번 설치하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콩 수량

증가에 따른 수익으로 시공비도 2~3년 이내에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촌진흥청에서 이 기술의 장기적인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시범사업 등으로 현장에 지속 보급된다면 향후 10년간(2024년~2033년) 증가하는 이익은 128억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이 확대되어 논 콩 재배면적이 증가하면 총이익은 지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농촌진흥청 생산기술개발과 고지연 과장은 "무굴착 땅속배수 기술은 논 토양의 배수를 개선해 습해를 막고 생산성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기술이다. 기후변화에 대응해 안정적인 노지재배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과 현장 확산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지난달 30일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계유공 정부포상(국무총리 표창)을 수상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정태규 국민연금공단 연금이사, 이형일 통계청장, 박경민 국민연금공단 가입기획부장(사진 오른쪽부터).

국민연금, 통계의 날 국무총리 표창

국민의 알권리 충족 · 국가의 사회복지정책 수립 기여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지난달 30일 정부대전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통계청 주관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에서 통계 유공 기관으로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

통계청은 통계의 중요성을 알리고 통계 활용을 권장하기 위해 통계의 날(매년 9월 1일)을 기념하고 있으며, 국가통계 발전에 기여한 통계작성기관 및 통계업무 종사자를 포상한다.

공단은 1988년 제1호 통계연보 발간을 시작으로 2023년 제36호 통계연보까지 매년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 및 기금잔반에 대한 현황을 공표하고 있다.

또한 국민 소통 강화와 민간기관과의 데이터 협업을 위해 '국민연금 빅데이터 포털'을 개설(22.4월)하여, 무료로 국민연금 관련 데

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통계청의 '포괄적 연금통계' 개발을 위한 데이터를 제공하여 노인인근 해소와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국정과제 42번)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수급자의 기초자료와 현황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지자체 등 협업 기관의 정책 마련에 필요한 데이터를 생산·공유하여 사회복지정책 수립에 대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결과이다.

이날 정태규 연금이사는 "앞으로도 통계청 등 여러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 정책이 시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농어촌공, 추석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달 29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사랑기부제를 적극적으로 소개하며,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공사 경영진이 앞장서서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고 기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사 본사에서 열린 행사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정보를 담은 안내 책자와 간식, 홍보품을 배포하고,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인정한 직원들에게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이 이루어졌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이병호 사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은 제도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직접 기부에 동참하는 기쁨도 함께 느껴져 행사의 의미를 더하였다.

이병호 사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 발전과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제도라며,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전국의 지자체에서 더욱 활발한 기부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라고 전했다. /김옥기 기자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도입 1주년... 기업 투자 노력 계속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반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된 지 1주년을 맞이했다고 발표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투자하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에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 해주는 일종의 경제특구제도이다.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 이후에는 16개 기업이 투자협약 및 입주 계약을 마친 상태로 사업준공, 사업자등록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2022년 12월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를 토대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1·2·5·6공구(약



8.1km²)를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했다.

현재 제1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의 분양율은 84%로, 이른 시일 안에 100% 분양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가진흥지구 외에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 입주기업 대상 임대주택 및 통근버스 제공 등 다양한 친기업 정책에 힘입어 지난 2년간 10조

원의 유례없는 기업투자를 유치했다.

또한, 대규모 용지를 필요로 하는 많은 기업들이 새만금 국가산단 3·7·8공구의 분양을 기다리고 있어 부지조성이 완료되는 대로 제2호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새만금개발청은 기업들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내에서 실제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매년 2회에 걸쳐 투자·고용 현황 등을 점검하고 불편 사항을 파악하여 개선할 계획이다.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약 10조 원의 투자유치 성과가 있었던 만큼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LX, 공간융합 빅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개최

LX한국국토정보공사(LX·사장 어명소)가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데이터와 서비스를 활용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데이터 유통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LX는 9월 3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월드스마트시티엑스포'에서 공간정보산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스타트업, 창업을 준비 중인 기업을 대상으로 공간융합 빅데이터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경진대회는 예선을 거쳐 본선으로 올라온 10개 팀(개인)이 플랫폼

데이터와 다른 유형 데이터를 복합한 데이터융합 분야와 플랫폼 서비스를 활용 두 개 부문에서 경쟁하게 된다.

시상은 응모작을 대상으로 심사 후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부문별 대상 2팀(명), LX 사장상,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장상 등 총 500만원 규모의 상금과 상장 수여된다.

또한 수상팀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4 K-CEO Fest(舊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수상자 홍보와 LX에서 운영 중인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

을 이용하여 데이터 유통을 지원받을 수 있다.

LX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기업이 생산한 공간정보를 유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2022년에 구축되어 현재까지 400여 개의 기업이 이용하고 있다.

LX 어명소 사장은 "공간융합 빅데이터 플랫폼은 민간에서 생산된 공간 정보를 국민·기업·국가가 활용할 수 있게 하는 매개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은행, 2024 '一石二鳥' 추석 나눔 전달식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지난달 29일 전북은행 본점 1층 로비에서 2024 '일석이조(一石二鳥)' 추석 나눔 사업 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전북은행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을 맞아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구매한 물품을 취약계층에 전달하는 봉사 활동을 통해 지방은행으로서 잠재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도민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고자 이번 사업을 마련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노진선 사무처장, 전북은행 박성훈 부행장 등이 참석했으며, 전북은행은 도내 사회적 경제 기업에서 구매한 2천만 원 상당의 백미를 전북은행 지역사랑봉사단 66개 봉사팀이 직접 독거 어르신 장애인, 저소득가정 등



취약계층을 찾아 사랑의 쌀 전달 봉사 활동을 펼치며 나눔을 실천했다.

박성훈 부행장은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는 착한소비 실천과 이웃사랑을 위한 나눔을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풍요로운 명절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동행하는 사회공헌활동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